

이웃 사랑

대저 모든 범물은 이 한마디로 채워진다 :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 바오로 갈라디아서 5:1

일

성모님(1974. 11. 23.) - "나의 딸아, 사랑은 널리 퍼져서 모든이에게 흘러들어 가야 한다. 사랑을 갖고 하지 않는 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의 딸아.

입으로 만.

성모님(1979. 10. 2) - "온 세상에서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 이라는 말을 나는 듣고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참뜻을 알고 있으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느냐? 거의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고 계시기에, 너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일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신인 것이다.

새로운 세상의 규칙

예수님(1977. 8. 5) - "나의 자녀들아, 사랑의 의미도 모르면서 '사랑' '사랑' ! 외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속지 말아라.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새로운 종교, 새 세상의 규정을 만들어 가며, 인간이 창조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와 근대주의에 기초한 사랑인 것이다!"

참사랑

예수님(1978. 5. 20) - "인간들이 그 본성에서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 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듣고있을때, 그들은 근대주의, 인본주의라는 오류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참 사랑은 너희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희생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는 그속에 있다. 그

까닭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장막 너머 올때 너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기도 뿐이기 때문이다!

충고

성모님(1977. 4. 9) - "잘못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사랑을 갖고, 충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타일러야 한다.

죄인을 사랑하여라

성모님(1979. 5. 23) - "판단 하지 마라: 죄는 경멸해야 하지만, 죄인은 늘 사랑해야 한다. 판단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판단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악(惡) 이라곤 없는 인간에게 다른 이를 판단하게 하라. 그러나,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흠어진 이 영혼이 하늘 나라의 영원한 왕국으로 향해서 가는 좁은 길위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 하여라"

덕(德)

예수님(1975. 6. 18) - "나의 딸아, 너희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큰 덕(德)인 것이다.

전파

예수님(1975. 5. 17) - "너희들의 가슴속에, 또 너희 자녀들의 가슴속에, 신앙을 견고히 지켜라. 이 신앙을 자비와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어른, 아이들을 나에게 대려와다오, 내가 그들을 빛으로 기르겠다"

아래 내용들은 천국에서 주어진 방대한 양의 메시지에서 추린 것이다. 이는 이 마지막 날들에 천국이 요구하는 바이며, 천주교신자로서 갖추어야 할 직권과 실천할 내용이다.

주교, 추기경

성모님(1979. 6. 9) -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이해심과 사랑 가득한 어머니 그리고 너희들의 어머니로서,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너희들의 주교들, 추기경들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을 위해서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다오. 그들은 지금 지옥의 세력들, 사탄, 666의 공격을 받고 있다.

교훈

성모님(1975. 8. 14) - "청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럿이 청한다면, 많은 이가 받을 것이다. 나의 딸아, 사랑이란 바로 이것이다.

거룩한

성모님(1978. 5. 20) -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기억하여라. 너희가 어느 길을 가든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미 거룩함을 향한 진보는 멈춘 것이다.

판단

성모님(198.. 6. 18) - "만일 어느 사제가 너희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하고 그들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할 때, 너희는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잘못을 했을때 너희는 친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들이 죄를 범했고, 영혼을 잃게 될것이고 연옥이나 지옥까지도 갈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판단이 아니다. 내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이 사랑이란 말이나!"

분노

성모님(1978. 12. 7) - "네 가슴속에 분노할 여유를 주어서는 않된다. 늘 사랑과 기도로 채워지도록 하여라."

전통

성모님(1976. 10. 2) - 신앙과 전통과 진리가 배제된 평화, 사랑, 형제애는 없다!

참뜻

예수님(1985. 7. 25) -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살인을 하고 있다. 너희는 증언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들은 증언으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랑이 어디에 있단 말이나? 나의 자녀들아, 사랑? 사랑의 참뜻을 알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사랑은 내어준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살인하지 않는다. 사랑은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지 않는다. 그런데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지배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형제들

성모님(1989. 10. 2) - "나의 딸아, 나는 너희들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간청한다. 나의 성자께서 그분을 못 박은 자들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죄인들

예수님(1979. 6. 9) - "나의 자녀들아, 항상 기억 하여라; 너희는 죄를 경멸해야 한다.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은총은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총이 없이는 누구나 쓰러질 수 있다!"

전쟁

예수님(1977. 3. 18) - "너희들의 세상이 평화, 사랑 형제애를 외치고 있는 동안, 한편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 세상이 평화, 사랑 그리고 형제애를 외치고 있는 동안, 그들이 형제들을 또 어린아이들을 살해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낸채, 얻고자하는

평화란 어떤것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인간이 죄에 자신을 넘길때 평화란 없다."

성신(聖神)은 거두어지고 있고...

예수님(1977. 8. 5) - "자비심이 식어가고 하느님의 사랑은 제쳐놓고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사랑이 주요한 이슈가 될 때, 내가 말한다. 그때가 올것이고, 그리고 성신은 사람들에게서 거두어질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그들의 길을 갈것이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르게 떨어져 갈것이다."

보살핌

예수님(1978. 8. 19) - "그러나 지극히 선하고 사랑 가득한 많은 영혼들이 너희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와 회생을 바쳤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 올 수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가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고, 돌보아 주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그렇게된 것이다."

너희가 사랑한다면...

성모님(1977. 9. 7) -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사랑을 한다면, 이것을 실천하여라.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어라. 그들은 가정에서의 표양과 부모로부터 삶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

이름으로...

성모님(1974. 9. 28) - "사랑, 사랑!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수없이 듣고 있다. 하지만 사랑의 참뜻을 알고 있는 자들은 거의 없다. 그 말이 남용되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형제애라는 이름으로 온갖 죄가 범해지고 있다. 형제애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의 생활이, 그리고 정부가 온통 부패하고 있다."

선행

영적 선행

1. 죄인을 타이른다.
2. 무지한 자들을 가르친다.
3. 의심하는 자들에게 조언해 준다.
4. 순피하는 자들을 위로한다.
5. 잘못을 인내롭게 참는다
6. 모든 상처받은 자들을 용서한다.
7. 산이와 죽은이된 위해서 기도한다

육적 선행

1. 배고픈이된 먹인다.
2.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3. 헐벗은 자들을 입혀준다
4.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한다.
5. 짐이 없는 자들에게 미물곳을 제공한다.
6. 방자한 방문한다.
7. 죽은 이된 묻어준다

너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세요

미국에서의 발원

은총, 평화 그리고 복음의 아들들을 이 일컫는 미국의 N.Y. 베이사이드, 예전의 성모님 센터, 교회 건물에서 천주의 모친께서 베로니카 유우젠에게 발원하신 1970. 6. 18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25년동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그녀의 천상 성자께서 다섯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에게 1995년 베로니카가 귀환할 때까지 이 성지에서 원하 기도동안 발원하셨다. 성모님께서 이 성지가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로사리오의 성모 성지로 발리우도록 칭하셨으며, 주일 성시간은 요양과 사제들을 위해서 바치도록 요청하셨다.

이 마지막 남들은 인도하시려고 지혜 가득한 300회가 넘는 포괄적인 메시지가 천국으로부터 '십자가의 베로니카' 라고 불리운 시험자들 통하여 전달되었다

OUR LADY OF THE ROSES MARY HELP OF MOTHERS SHRINE
P.O. Box 52, Bayside, NY 11361 (718)961-8865.24 hours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로사리오의 성모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7 안흥B/D 207 Tel 02-419-5450